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못한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대한 피해준 경우 즉시 폐쇄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가 제한된다. 임신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신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

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 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신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신부·신생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임신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는다.

/이세경 기자

경남제약 '레모나' 가 진출... 오앤영과 유통계약

경남제약의 '레모나'가 베트남에 이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다.

경남제약은 오앤영인터내셔널과 캐나다 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를 전세계에 '글로벌 대표 비타민'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매출 극대화도 노린다는 각오다.

오앤영인터내셔널은 '오앤영 성형외과'의 계열 회사로 중국과 홍콩, 북중미 등 글로벌 유통업체에 한국 화장품과 이너뷰티 아이템(건강 미용식품 등)을 전문 유통하고 맞춤형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오앤영인터내셔널은 레모나를 캐나다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 및 유통하게 되며, 오프라인 업체들



과의 바이어 파트너십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93년 설립돼 캐나다 전역에 17개 매장을 보유한 캐나다 최대 아시아계 슈퍼마켓체인 티앤티(T&T)를 시작으로, 캐나다 토종 유통 업체인 '로블로' '소베이' '메트로' 등에 레모나를 입점시킬 예정이며, 이후에는 온라인 시장으로 점차 확장해 매출 다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신세계푸드 차세대 먹거리 '케어푸드' 선점 나서

신세계푸드가 식품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여겨지는 케어푸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EASY BALANCE)'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케어푸드란 건강상의 이유로 맞춤형 식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로 통용되고 있다. 주 고객은 노인과 환자지만 일시적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산모, 어린이 등도 포함된다. 케어푸드의 종류로는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 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연화식(軟化食)과 인두, 식도 근육이 약해져 연하(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곤란한 경우 이를 돕는 연하식(嚥下食)으로 나

뉜다. 신세계푸드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를 넘어섰고, 고령자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량팩 또는 가정간편식 형태의 연하식을 제공할 경우 향후 케어푸드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를 론칭하고, 신규 개발한 연하식 5종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 자체 개발한 연하식 및 영양식 제조 기술에 관련된 특허 4건도 출원했다. 신세계푸드는 첫 출시한 이지밸런스 연하식 5종 외에 추가로 제품을 개발해 요양원, 대형병원 등 B2B(기업간 거래) 시장을 공략한 후 향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지밸런스 연하식 5종 /신세계푸드

정부 4200억 투입... 바이오 육성

〈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년 3807억대비 10.1% 증액
바이오 융복합 기술 확보 적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42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 바이오 산업혁신 전략에 따라 올해는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3807억원) 대비 10.1%가 증액된 419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등 바이오 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3D 생체조직집 등 미래 바이오 융복합 기술 확보에 적극 투자한다.

정부는 우선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등 바이오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타깃 발굴 및 검증 등을 위한 신규 사업 등 신약기술 확보를 위해 614억원을 투자한다. 또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 올해 약 295억원(2025년까지 총 1조1971억원)을 신규

2020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 총 4193억원 (전년 대비 10.1% 증가)	
국민건강 증진	
치매	30억원
뇌질환	571억원
감염병	244억원
핵심 산업육성	
신약	533억원
의료기기	295억원
정밀의료	41억원
원천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재생의료 등 차세대기술	900억원
그린 및 화이트 바이오	263억원
생명연구자원	489억원
창업 및 사업화	379억원
미래 융복합기술 확보	
바이오 빅데이터	43억원
IT 등 융복합	109억원
융복합헬스케어	296억원

자료/과기정통부

지원한다.

정밀의료 예측 및 진단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유전체, 단백질, 대사체, 전사체 등 생체정보(오믹스) 데이터를 발굴,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올해 41억 70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빅데이터 등이 바이오 분야에도 활용돼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돼 융복합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2만명 규모의 연구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를

환자 의료부담 던다... 산정특례 질환 추가

(회귀·난치질환)

91개 질병 지정... 4700여명 혜택
산정특례 제도, 본인 부담률 10%
환자 의견, 심의 거쳐 적용대상 확대

회귀·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올해 91개 질병이 추가돼 4700여명의 환자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회귀질환 여부를 진단할 요양기관도 추가 지정해 환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1일부터 산정특례 회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회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올해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회귀질환으로 추가됐다. 약 4700여명이 추가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회귀질환은 총 1014개로 늘어나고 혜택 인원도 종전 약 26만5000명에서 27만여명으로 증가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 의견을 회귀질환 헬프라인, 국민신문고 등 경로로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회귀질환관리위원회와공단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 질환군을 신설, 지난해 30개에 이어 올해 22개 등 총 52개 질환자에게 산정특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회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 외에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중증환자) 등을 지원하는 회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세경 기자

필요성 알지만 10명 중 6명만 '건강관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원

성인 10명 중 9명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원 구원의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8~

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2%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1%에 그쳤다.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7.2%, '10년 후에도 건강이 변함이 없거나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응

답자도 78.5%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건강관리 중요성에 비해 지금 당장 필요성은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50.2%)는 2명 중 1명만 건강관리를 하지만, 60대(74.5%)는 4명 중 3명이 관리하는 등 실천율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정기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검진(45.1%), 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34.6%), 식습관 개선(40.2%) 순이었다.

/이세경 기자